



미 증시, 매파적 FOMC 결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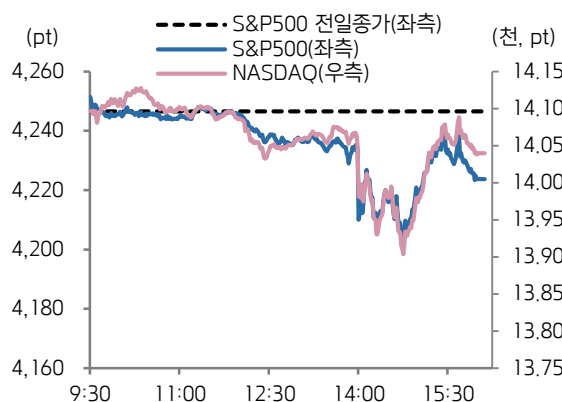
16 일(수) 미국 증시는 장 중반까지 6 월 FOMC 경계심리로 약세흐름을 보인 가운데, 6 월 FOMC 에서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10 년물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출현 등으로 하락 압력이 심화. 다만,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 발언을 소화하며 성장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낙폭을 만회하며 마감(다우 -0.8%, S&P500 -0.5%, 나스닥 -0.2%).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0.2%)를 제외한 유틸리티(-1.5%), 필수소비재(-1.2%), 소재(-1.2%) 등 전업종이 약세.

6 월 FOMC 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동결. 초과지준금리(IOER, 0.10%→0.15%), 역레포금리(0.0%→0.05%)는 인상. 2021 년 경제성장률(6.5%→7.0%), PCE 인플레이션(2.4%→3.4%), Core PCE 인플레이션(2.2%→3.0%)은 상향. 점도표상 중간 값은 2021년과 2022년에 0.1%로 제시했으나, 2023년 중간값을 0.6%로 제시하면서 2023 년에 2 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2023 년 금리 인상 예상한 위원 수는 지난 3 월 7 명에서 13 명으로 증가).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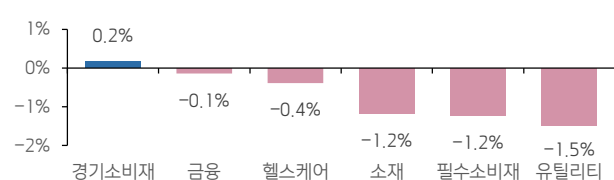
6 월 매파적이었던 FOMC 결과 발표 이후 주식시장 약세,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이 동반 출현한 것은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에 있음. 파월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올해가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한 점은 연준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쪽으로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향후 테이퍼링을 단행하더라도 시장에 정책 변화를 미리 제공할 것이며, 테이퍼링 시점도 일정보다는 진전 속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준의 정책 변화는 데이터 의존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 점도표상으로도 예상보다 이른 시점인 2023 년 금리 인상으로 예고했으나, 향후 실제 금리에 대한 예측치가 아니라고 언급. 이는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점도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6 월 FOMC 가 예상했던 수준의 매파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면서 16 일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반등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

S&P500 일중 차트(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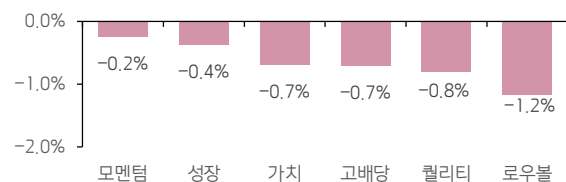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16일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6월 1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3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2.1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2. 매파적이었던 6월 FOMC 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급등 경계심리 3. 최근 부진했던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증대

한국 증시 리뷰

16 일(수) 코스피는 장 마감 후 발표 예정인 6 월 FOMC 결과를 둘러싼 관망심리가 상존했음에도, 경제 정상화 기대감 지속, 인플레이션 불안감 선반영 인식 속 외국인의 현선물 시장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 최근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금융, 시클리컬 업종 위주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사상최고치(3,278.68pt)를 재차 경신(코스피 +0.6%, 코스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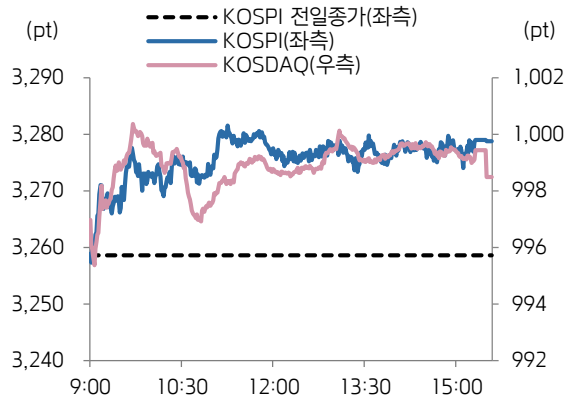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은행(+2.3%), 운수창고(+2.0%), 의료정밀(+1.6%) 등이 강세, 섬유 의복(-2.1%), 의약품(-0.8%), 통신(-0.8%)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66 억원, 327 억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3,259 억원 순매도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달러 강세, 시장금리 상승 등 6 월 FOMC 이후 나타난 외환 및 채권 시장 변화에 영향을 받아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장 후반 낙폭을 만회하긴 했으나, 금리, 달러 등 매크로 환경 변화에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또한 금일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 시 외국인 수급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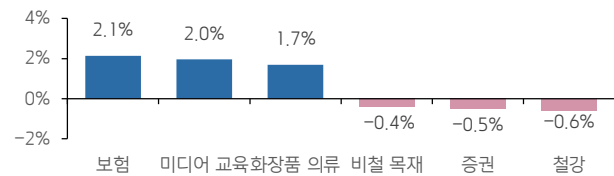
다만 매파적이었던 6 월 FOMC 가 예상했던 수준이었으며 과잉 유동성 장세 종료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 경제 정상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금일 국내 증시에서 업종 무관한 자금 유출이 아닌 개별 이슈에 따른 업종 간 순환매를 지속하게 만들면서 전반적인 증시 하단을 지지 시켜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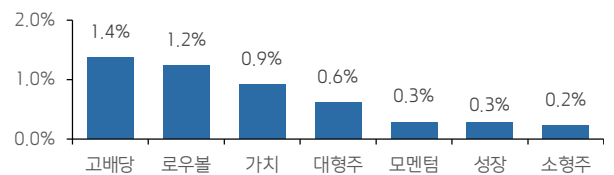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16일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6월 16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